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 처벌”

전주상공회의소, ‘김영란법’ 설명회…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제재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8일 전주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는 9월 28일 시 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해, 130여명의 지역 기업체 및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김엔장 법률사무소 김종석 변호사는 “법을 적용기관은 국회, 법원 등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과 언론사”이며, “적

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표 및 임직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등 공직자 등의 범위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에는 제 공직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 수 수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한 “금품 등 수수 없이도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부정청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외여부가 불명확해 해당 조항의 확 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 집행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경쟁업체 등의 각종 악의적 제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며, “대관업무 관행 개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 준 법 경영 시스템 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상의는 대행상의에 설치된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 · 상담센터(1600-1572)를 통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광영기자



우리축산물로 만든 전국 추석음식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국 8도의 축산물로 만든 추석음식을 살펴보고 있다

‘닭고기의 가정간편식 레시피 만나요’

하림, ‘2016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6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의 축산물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이다.

하림은 국내 닭고기 기업을 대표해 최대 규모 브랜드 홍보관을 설치해 자사의 주력 브랜드를 전시·홍보하며,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시식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축산물 최초로 사료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공정이 안전관리통합인증(HACCP)을 받은 ‘자연실록’ 제품홍보를 비롯해, 가정간편식 제품을 즉석에서 조리해 다양한 닭고기 요리를 선보인다.

특히 1인 가구 확대와 점밤 선호 트렌드에 맞춰 출시된 양념기공육 제품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리를 가정간편식으로 재현한 ‘하림 춘천식 닭갈비’, ‘하림 인동

식 짬뽕’을 비롯해 포장마차 대표 안주를 반조리 제품으로 선보인 ‘하림 포장마차식 빼없는 양념 닭발’과 ‘하림 포장마차식 터لى 양념 닭발’ ‘하림 포장마차식 양념 근위’ 등 집에서도 간편하게 완성도 높은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아외활동이 많은 기을을 맞아 피크닉과 캠핑용 닭고기 레시피도 소개한다.

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하림은 해마다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특히 올해는 가정간편식 인기에 힘입어 집이나 아외에서 간편 조리가 가능한 양념기공육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여 소비자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은 9월 8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C홀 2-3관에서 진행된다.

/약신=장양원기자

다가오는 추석 ‘그루밍’ 스타일로 변신을

헨리넥 셔츠·스킨케어 등 남성 패션·피부연출법 공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가족과 친구 등 평소 잘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의 모임이 많아지는 시즌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에게 후줄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추석맞이 그루밍에 도전해보자. 단정하지만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멋스러운 패션 아이템과 건강하고 깨끗한 인상을 줄 피부 연출을 통해 호감 지수를 높일 수 있다.

◇추스패션, 멋과 편안함 두루 갖 춰야

집안 어르신들이 모이는 가족모임에는 격식있고 단정한 스타일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정한만을 추구하다 ‘아재패션’이 끼어들다면

곤란하다.

장시간 운전하고 이외에 머무를 것을 김연애 클래식한 멋과 편안함을 두루 갖춘 추석 패션을 완성하자.

세련되고 편한 스타일을 위해서는 칼라(깃)가 짧은 헨리넥 셔츠가 제격이다. 니트 베스트를 코디하면 갖춰입은 듯한 멋스러움이 있다.

◆끼칠·최적한 피부 ‘스킨케어’로

잘 정돈된 깨끗한 피부는 궁극적인 인 인상을 준다. 계속된 야근에 환절기까지 겹쳐 깨끗하고 최적한 피부가 고민이라면 스킨케어에 관심을 기울이자.

아모레퍼시픽의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오딧세이’ 블루에너지 2종

세트는 천연벌꿀주정 성분이 면도 후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피부에 수분을 충전해 생기를 더해 준다. 에센스 워터와 핫조 추출물이 담긴 에멀전으로 구성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울 향으로 댄디한 남성미↑
피부를 정돈해줄 남성 전용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피부연출을 도와주는 제품들이 출시됐다. 헤라 워크 CC크림은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이 한 병에 담긴 남성 전용 메이크업 제품으로, 외출 전 가볍게 피부에 발라주면 인위적인 느낌 없이 깨끗한 피부 표현을 돋는다.

/뉴스

사이판과 하노이 노선, 연내 취항

이스타항공, 신규취항 준비

이 노선을 취항하게 되면 국제선 총 23곳의 정기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구준한 노선을 연내 취항한다고 8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올 상반기까지 인천·타이페이(타오위안), 청주·노보, 인천·후쿠오카 노선에 이어 지난 8월 29일에는 제주·인천·하노이 노선까지 신규취항을 했다.

연내 취항 예정인 사이판과 하노

이 노선을 취항하게 되면 국제선 총 23곳의 정기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구준한 노선 확장으로 항공여행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며 “앞으로 있을 신규취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통영기자

Dream Hub GUNSAN

전북은행, ‘행복한 추억, 가족사진’ 액자전달 축하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7일 본점 3층 종합의실에서 전북장애인복지관(관장 장현숙)과 함께 2016 ‘행복한 추억, 가족사진’ 액자전달 축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은행 김병용 부행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전북장애인복지관 장현숙 관장, 오준규·정

순교 사진작가, 장애인가정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전북이벤트MC협회 정진 사회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됐다.

가족사진 촬영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이동스튜디오와 네이버 청년 작가 10인에 선정된 바 있는 오준규 사진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실시됐다.

/고민형 기자

Hello, Modern
전시관 여행객

근대, 추억을 만나다

군산시간여행 축제

2016.9.30 Fri ▶ 10.2 Sun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군산시
GUNSAN CITY
관광진흥과

T. 063)454-3343 festival.gunsan.go.kr

*시간여행 드레스코드(교복·양장 등)에 맞는 복장으로 행사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